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3/4분기 실질 무역 손실, 사상 최대치 기록
- 곡물시장으로 몰려드는 글로벌 투기 자금

## 경영 노트

- 흔들리는 아성, 델(Dell)의 도전

## 사회 트렌드

- 만화의 위력
- 해피 슬래핑(Happy Slapping)

## 저널 브리프

- 2007년 막 내리는 블레어 시대

## 洗心錄

- 위대한 집단

### □ 3/4분기 실질 무역 손실, 사상 최대치 기록

- 2006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건설투자 침체 등의 영향으로 2/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5.3%에서 4.6%로 하락함
  - 수요 부문별로는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2/4분기보다 2.2%p 증가한 9.6%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으나, 민간소비가 같은 기간 4.4% 증가에서 3.9% 증가에 그치고 건설투자가 1.8%의 감소세를 지속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0.1% 및 3.6% 증가에 그침
  - 한편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도 약 -18조 8,000억 원 (對 GDP 비중 9.6%)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외형상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교역 조건 악화로 실질 구매력도 정체되고 있어, 향후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됨

### □ 곡물시장으로 몰려드는 글로벌 투기 자금

- 최근 CBOT (Chicago Board of Trade,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밀, 옥수수, 귀리 등의 곡물 가격이 급등세를 보여 9월 이후 약 30% 이상 상승함
  - 곡물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과 인도가 고성장 및 인구 증가로 식량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시장 공급량도 美 농무부가 2006년말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세계 밀과 옥수수 재고량이 각각 25년 및 2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시장 수급 불안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마저 곡물시장에 유입되어 곡물 가격 급등세를 가중시킴
- 곡물 공급의 비탄력성, 투기 자금의 유입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도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세계 식량 위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흔들리는 아성, 델(Dell)의 도전

- (개요) PC업계의 세계 최대 기업인 델은 최근 배터리 리콜, 인재 유출, 회계 부정 등의 악재로 인하여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
  - 핵심 사업인 PC 부문의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32%나 떨어지고 영업이익률은 8.7%에서 4.3%로 감소함
  - 반면 업계의 경쟁자인 휴렛팩커드(HP)는 CEO의 교체와 구조조정의 결과로 동기간 주가가 60%나 치솟으며 시장의 강한 신뢰를 받고 있음
- (원인 분석) 델의 실적이 부진한 근본 원인은 변화하는 소비시장에서 고객 만족을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효율 경영만을 추구한 결과임
  - 주문 후 생산하는 무재고 방식의 철저한 효율성 추구로 시장 경쟁력을 유지해온 델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과 고객만족을 위한 투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예를 들어 최근의 여러 악재에 대하여 콜센터의 무성의한 고객 대응으로 인한 고객 불만 누적이 성장세 둔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새로운 도전) 델은 기존의 가격경쟁력이 아닌 부가가치 모색을 통한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다각화를 지향함
  - 금년 3월에 디자인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PC메이커 ‘에어리언웨어’를 M&A하였으며 브랜드 및 디자인 등 새로운 경쟁력을 모색하기 시작함
  - 또한 PC사업에만 전념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의 진화를 모색하면서 새로운 수익원 확립을 위한 사업다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시사점)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업계 선두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지속적 개발과 함께 새로운 시장 개척이 요구됨
  - 소비 시장의 욕구 변화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 실현을 위한 유연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구조의 정기적 재검토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 탐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 만화의 위력

- 최근 만화가 국내 대중문화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의 성공이 이어지고 있음
  - 최근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영화 ‘타짜’는 허영만씨의 만화가 원작이며 ‘식객’도 영화로 제작 중임
  - 강풀씨의 만화도 미스터리 심리물 ‘아파트’로 영화화되었고 ‘순정 만화’는 현재 연극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음
  - 또한 2편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드라마 ‘궁’, 그리고 몇 년 전에 방영한 ‘풀하우스’ 또한 만화가 원작임
- 반대로 교육에서는 원작의 만화화를 통한 콘텐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역사, 과학, 동화 등 아동 도서 전 분야에서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원작을 만화화한 학습만화 분야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만화적 상상력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문화적 트렌드는 더욱 강해지고, 온-오프라인의 매체 통합으로 만화의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임
  - 만화 콘텐츠의 절대적 가치가 향상되고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만화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훨씬 더 개방될 것임
  - 이를 통해 만화의 사회, 문화적 역할은 한층 더 긍정적이 될 것으로 보임

## □ 해피 슬래핑(Happy Slapping)

- 10대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행인을 지목해 구타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친구들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지칭함
  - ‘행복 때리기’로 번역이 되나 일명 ‘묻지마 구타’라고 볼 수 있으며, 변형된 ‘이지메’라고 할 수 있음
  - 영국에서 시작된 이 유행은 MTV의 우스꽝스럽고 폭력적인 스텐트 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대중매체가 폭력을 부추기고 이를 정당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사회의 책임 의식과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2007년 막 내리는 블레어 시대\*

- (토니 블레어 조기 퇴진 공식화) 소속 노동당 퇴진 압력에 굴복한 블레어 영국 총리는 최근의 노동당 전당 대회에서 자신의 조기 퇴진을 공식화함
  - (블레어 총리의 功) 블레어 총리는 3회 연속 총선 승리와 교육, 보건 등 분야에서 질적인 향상을 가져 옴
    - 3회 연속 총선 승리: 총선에서 3회 연속 승리해 10여 년째 총리 수행
    - 교육, 보건의 질 향상: 1997년 총리 취임 후 10년 간 교육과 보건의 질을 향상시키고 범죄를 감소시킴
  - (조기 퇴진 선언 원인) 미국 추종 외교 정책으로 비판을 받아 온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 전쟁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 불신이 증폭, 2006년 조기 퇴진 선언에 이름
    - 비판 받는 미국 추종 외교: 이라크 전을 비롯해 코소보, 시리아, 레바논 등 각종 세계 분쟁 개입에 대해 미국 추종 외교라고 비판 받음
    - 국민 과반수 정권 불신: 이라크 전쟁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자 2005년 5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수는 블레어 총리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전망) 10년간 재무장관으로서 영국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브라운 재무장관은 차기 총리로 당선될 경우, 미국 추종식 외교 정책을 변경하고 노동당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지난 10년 간 브라운의 경제 정책) 브라운 장관은 가계 부채, 세금 부담 증가를 초래했으나, 영국 경제의 57분기 연속 성장에 기여하고 영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함
    - 가계 부채, 세금 부담 증가: 가계 부채는 1997년에 비해 3배 증가하고 세금 비중이 1997년 GDP의 37.3%에서 39.7%로 상승
    - 영국 경제 57분기 연속 성장에 기여: 인디펜던트誌는 브라운 장관 재임 기간 중 영국 경제가 57분기 연속 성장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
    - 영국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정부의 금리결정권을 영국중앙은행(BOE)으로 이양하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함
  - (외교 정책의 변화) 브라운은 총리 당선 후, 블레어의 미국 추종 외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새 노동당'(New Labour) 프로젝트를 통해 노동당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임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10.30)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 위대한 집단

리더십 분야의 대가 워렌 베니스(Warren Bennis) 교수는 어떤 집단들은 자신이 ‘위대한 집단’(Great Groups)이라고 부르는 수준에까지 이르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위대한 집단은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도 대개는 매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해 낸다. **간단히 말해 위대한 집단은 고도의 헌신성과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생산성을 지닌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가 예로 드는 ‘위대한 집단’은 맨해튼 프로젝트(미국 정부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 1942~45년 비밀리에 추진한 연구 작업의 암호명)에 참여하여 원자탄을 개발해 냈던 과학자들, 록히드 사의 그 유명한 스킨크 워크스(skunk works, 국가나 기업이 비밀리에 추진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개발 프로젝트)에 모여 일했던 엔지니어들, 월트 디즈니사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스튜디오를 세웠던 팀들이다. 이들은 극소수의 팀원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리더의 손에 의해 기술의 새로운 경지가 열리고,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세계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성과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베니스 교수는 위대한 집단이 성공하는 데는 서로 현격히 다른 두 가지 리더십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리더십은 예언자 역할인데, 위대한 집단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경로를 구상하는 것이다. 둘째는 예언의 보호자 역할로서, 가혹한 현실 세계의 장애물들을 막아내는 일이다.** 예언자 역할은 ‘드러난 영웅’이 하지만, 보호자 역할은 ‘숨은 영웅’이 하는 경우가 많다.

초창기 디즈니 안에서 월트 디즈니가 예언자 역할을 맡았다면 동생 로이 디즈니는 예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서는 성미가 괴팍스러웠으나 예언자적인 물리학자였던 오펜하이머가 비전을 제시했고, 강인한 군인이었던 레슬리 R. 그로우브즈 장군이 외부의 간섭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물론 한 사람이 두 가지 리더십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 두 리더십의 조화가 하나의 팀을 위대한 집단으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당신 역시 위대해 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 마크 트웨인(1835~1910): 미국의 소설가